

연둣빛 싱그러운 초목에서 행복 찾기



향긋한 봄내음이 가득한 계절, 서둘러 저버린 벚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 봄 정취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봄을 상징하는 '연둣빛' 싱그러운 초목의 향연을 보고 싶노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 넉넉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초록물결 넘실대는 '고창청보리밭축제'를 제대로 즐겨보자!
/편집자주



▲제21회 고창청보리밭 축제... 5월 12일까지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원 일원의 '고창청보리밭축제장'은 지금 초록빛의 청보리가 살랑살랑 손짓하고 있다.

20만 여평의 광활한 대지에 눈부신 초록물결과 함께 딱거리, 즐길거리를 선사할 '제21회 고창청보리밭축제'가 오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23일간 펼쳐진다.

66.1ha! 드넓은 대지에 초록빛을 뽐내는 청보리는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에 상쾌함을 선물해준다. 청량한 힐링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매년 축제 기간에만 50만여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을 정도로 봄철 대표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청보리밭으로 유명한 고창의 학원농장. 학원농장이라는 이름은 옛 지명인 '한새골'에서 유래했다. '한새'는 고창에 많이 사는 백로와 왜가리 등을 이르는 말로, 설립자인 이학 여사의 이름인 '학'자에 들을 뜻하는 한자어 '원'을 붙여 학의 들이라는 뜻으로 지어졌다. 학원농장은 봄에는 청보리와 유채꽃, 여름에는 해바라기와 백일홍, 가을에는 메밀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겨울엔 드넓은 설국의 천지로 변한다.

▲볼거리·먹거리·살거리 넘쳐나는 축제 21회를 맞는 올해 축제는 좀 더 특별하게 펼쳐진다. 그동안 장관만 보여주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바쁜 일상에 지쳐있는 현대인에게 '녹색 쉼터'에서 잠시 쉴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공간적 의미의 축제로 그 외연을 넓혔다.

봄바람에 파릇하게 훑날리는 청보리의 모습은 오선지 위에서 음표들이 춤추듯이 만들어내는 음악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연상시켜, 이번 제21회 축제는 '청보리밭'과 '음악'을 주제로 삼았다. 올해는 드넓은 청보리밭을 무대로

공음면 학원농원 일원서 내달 12일까지 23일간 펼쳐 장관만 보여주는 프로그램서 벗어나 '잠시 쉴 수 있는 여유' 제공 공간적 축제로 외연 넓혀 '청보리밭'·'음악' 이주제 버스킹 등 음악공연 다채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운영



한 다양한 음악공연이 선보여진다. 개막식 공연을 비롯해 보리밭 사이길 버스킹, 관광객 참여 공연 등 다채로운 음악관련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아이들의 놀이 공간 확대도 이뤄졌다. 다목적 전시관 내 '보리밭 놀이터' 및 '보릿가투 글씨 쓰기 체험'의 구성으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기획했다. 그로 인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연령대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했다.

내부주차장 이용 유료화, 전액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먹거리 안전도 배농을 수 없다. 군은 축제장 내 음식점 위생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바가지 요금없는 축제 운영을 위해 종합상황실 내 신고센터, 식사류 및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기간 중 내부주차장 이용을 유료화하고 상품권으로 전

액 환원한다. 이는 축제 개최의 시너지 효과가 지역경제에 가시적으로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한민국 경관축제 1번지인 '고창청보리밭 축제'가 장기적 발전 방향을 찾는 시도다. 더불어 차량 집중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내부주차장 유료화는 차량통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출차 시 부과되며, 부과된 이용료는 전액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축제로, 볼거리와 먹거리 등에서 아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줄 것"이라며 "축제장은 물론 다수가 모여드는 장소도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해 군민과 관광객이 맘껏 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